

Macro hot issue

한국 경기 회복의 Key, 수출 현황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February 2023



2023년 경제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앞서고 있다. 부문별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경제환경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출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가 강한 긴축의 여파로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무역액/GDP)는 2022년 1분기 기준 79.7%로 2020년 59.8% 이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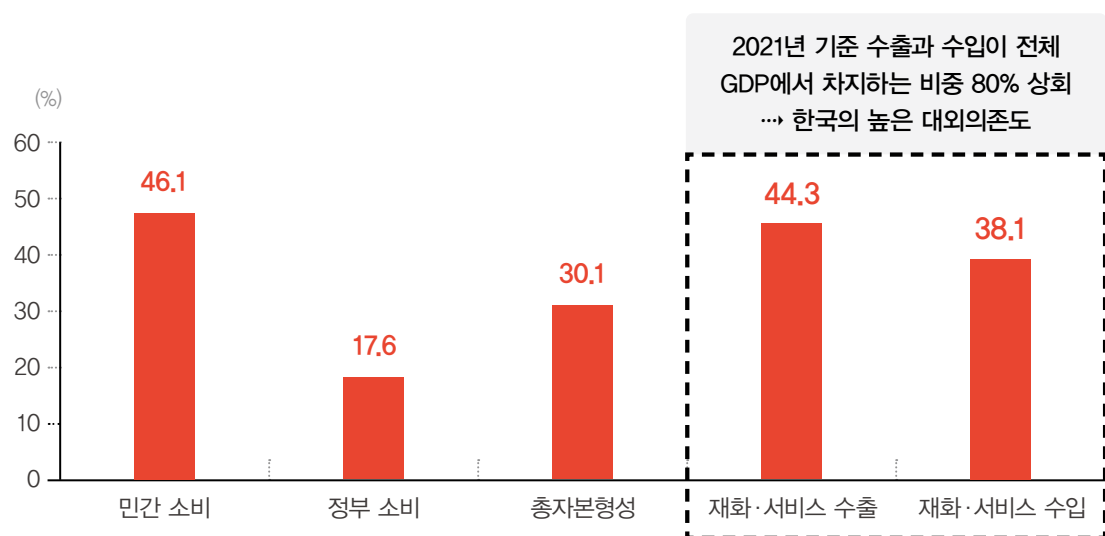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출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2022년이 P(생산자 물가, 환율)에 의한 수출 악화였다면, 2023년은 Q(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수요)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약 70%가량이 수출 기업임을 감안 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수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방향성 및 회복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Prologue: 한국에 있어 수출의 의미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수출임. 한국은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이뤘기 때문임

도표 1 한국 GDP 중 대외의존도 82.4% (2021년 기준)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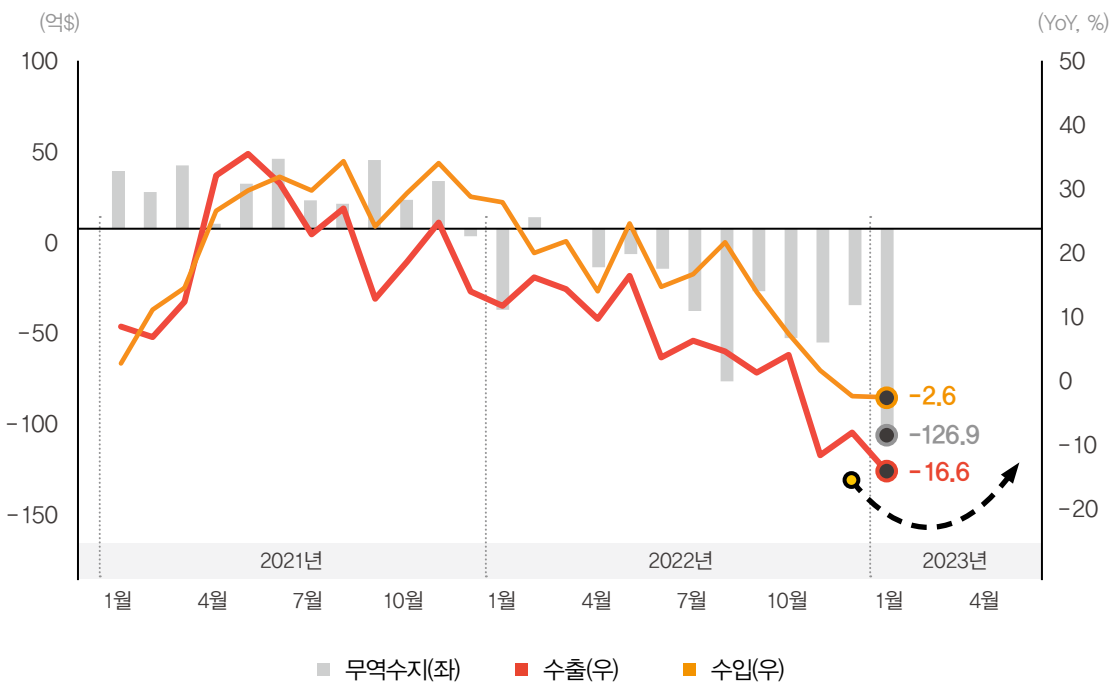
2. 2022년 수출 Review: 상고하저(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기록)

- 2022년 무역환경은 비우호적: 불확실성 하의 교역 위축 및 수입물가 상승
 - 수출 변수: 3高 현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 Negative
 - 수입 변수: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수입의존도 높은 에너지 가격 급등 → Negative
 - 수입물가지수(2022년), 전년 대비 약 +40% 육박 수준으로 상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간 수출 규모는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2022년 연간 수출·수입 증감률: YoY +6.1%(\$6,839억), +18.9%(\$7,312억)
 - 수출 증가 요인: 코로나-19 진정 이후 보복 소비 등 글로벌 수요 전반 확대에 기인
 - 다만 2022년 하반기(특히 10월)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어 급기야 역성장국면 진입
 - 물론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10월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로 전환
(2022년 12월 수출: YoY -9.5%인 \$549.9억, 2022년 12월 수입: YoY -2.4%인 \$596.8억)
(2023년 1월 수출: YoY -16.6%인 \$462.7억, 2023년 1월 수입: YoY -2.6%인 \$589.6억)

- 연간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기록(14년 만의 적자): 3대 에너지원(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 단가 상승에 기인하여 수입액 YoY +27.7% 급증 → 무역수지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적자 기록 중(2022년 12월 -46.9억 달러 → 2023년 1월 -127억 달러)
 -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기반 수출 강국의 공통된 현상

도표 2 월별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2021~2022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 수출품목을 제품 단계별로 보면, 소비재 12%, 중간재 35%, 자본재 53%의 비중인데 2022년 하반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율이 하락을 보인 것은 자본재임. 여기에 IT 관련 제품이 포함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

- 연간 수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임

-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 품목 이외에 신(유망)산업인 이차전지,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 OLED 등의 품목 수출까지 고르게 증가
 - 2022년 기준으로 시스템 반도체 \$506.8억(2021년 \$397.6억), OLED \$149.0억(2021년 \$145.3억), 전기차 \$98.3억(2021년 \$69.9억)
- 전체 수출의 19~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가격 하락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12월 반도체 증감률은 YoY -29.1% 기록 vs. 자동차 YoY +28.3%, 이차전지 YoY +29.7% (15대 주요 품목 중 2022년 12월 YoY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이차전지, 선박 등 4개 품목뿐)
 - 2022년 누적 실적 기준(아래 표 참조)으로는 **석유제품 > 자동차 > 이차전지** 순으로 증가

도표 3	15대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 (2022년)								(억\$, %)
구분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차 부품	이차전지	
수출액	1,292.3	511.3	542.9	541.0	630.2	384.6	233.2	99.9	
증감률	+1.0	+2.1	-1.5	+16.4	+65.3	+5.7	+2.4	+15.2	
구분	디스플레이	선박	바이오헬스	무선통신	컴퓨터	섬유	가전	총계	
수출액	211.5	182.0	163.2	172.4	159.6	123.1	80.6	6,839.5	
증감률	-1.1	-20.8	+0.3	-10.4	-4.7	-3.9	-7.1	+6.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석유제품: 고유가 영향

*2 자본재 구성: IT 부품 43%, IT 제품 14%, 수송장비 15%, 기계류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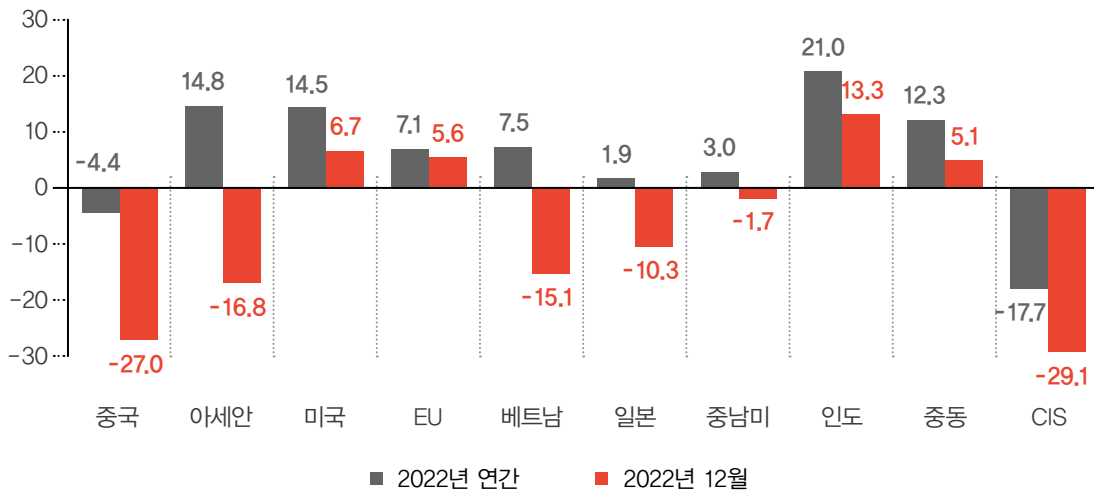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에 있어 2022년 연간으로는 아세안, 미국, EU 등은 증가 vs. 대(對)중국 수출의존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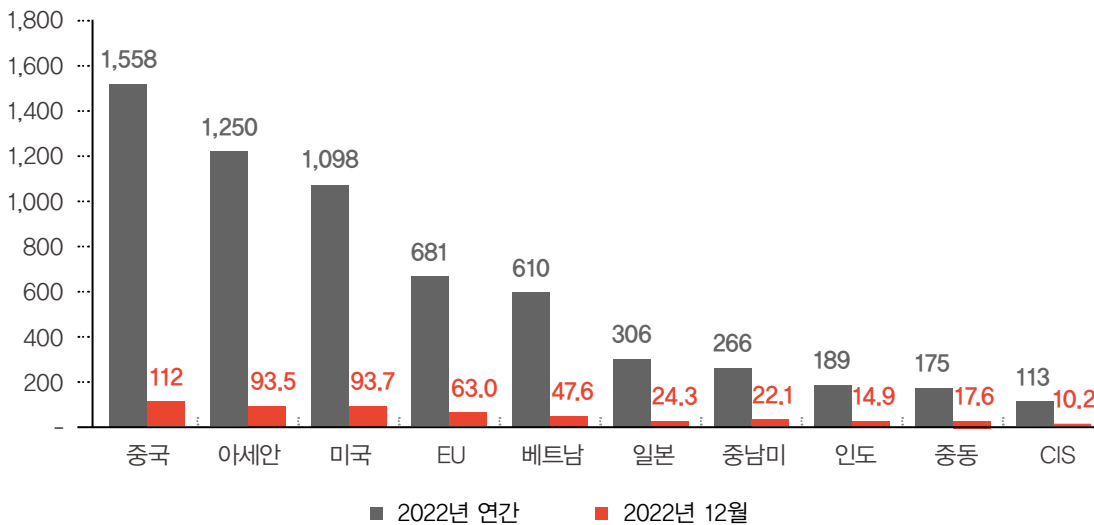
-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對)러시아 제재 등 영향으로 대(對)중국 및 대(對)CIS 수출은 감소
 - 수출 1위 대(對)중국 수출은 7개월 연속 YoY -27%: 반도체(2022년 12월 -29.1%, 단가 하락), 석유화학, 무선통신 등 중간재가 대(對)중국 수출 감소 주도
- 대(對)미국 수출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미국 경기를 대변해 주고 있음
- 또한 2022년 10월 이후로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로의 (YoY)수출 증가율 감소세 전환

도표 4 지역별 수출 증감률과 수출 규모: 대(對)중국 수출 부진 심화 & 아세안, 베트남 등 수출 약화

지역별 수출 증감률 (YoY, %)



지역별 수출 규모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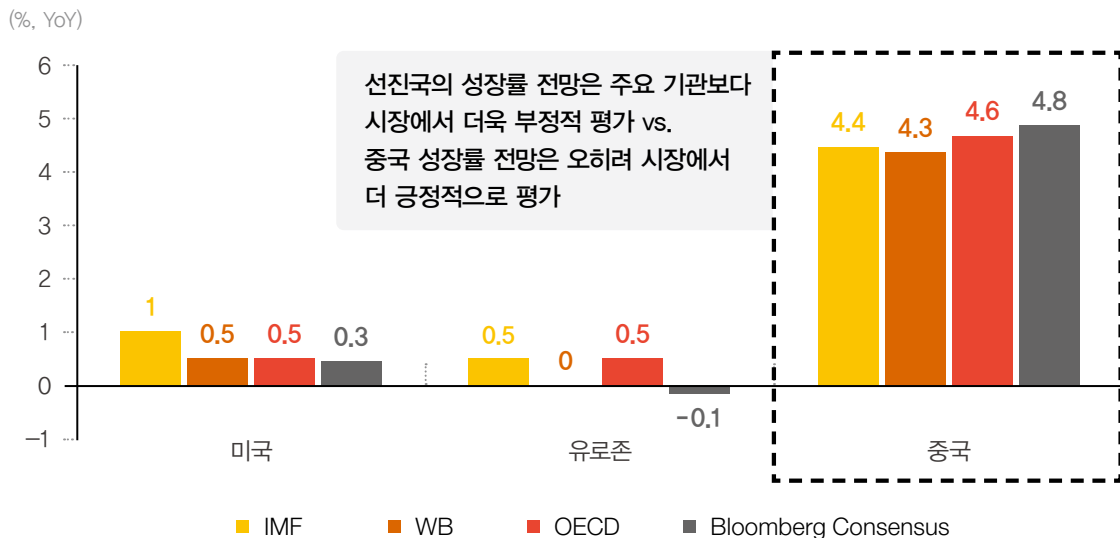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2023년 수출 전망: 상저하고 예상, 결국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 비우호적 환경 지속: 2023년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2023년 상반기 수출은 최소한 2022년 12월보다 확대된 -10% 중반대가 예상(실제 2023년 1월 수출 YoY -16.6%)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022년까지 미국과 일부 유럽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그나마 수출에 있어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2023년은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달러 강세와 본격화된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구재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완만하거나 하향 추세를 보인다는 점
 - 그나마 정책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부양책의 시기가 빨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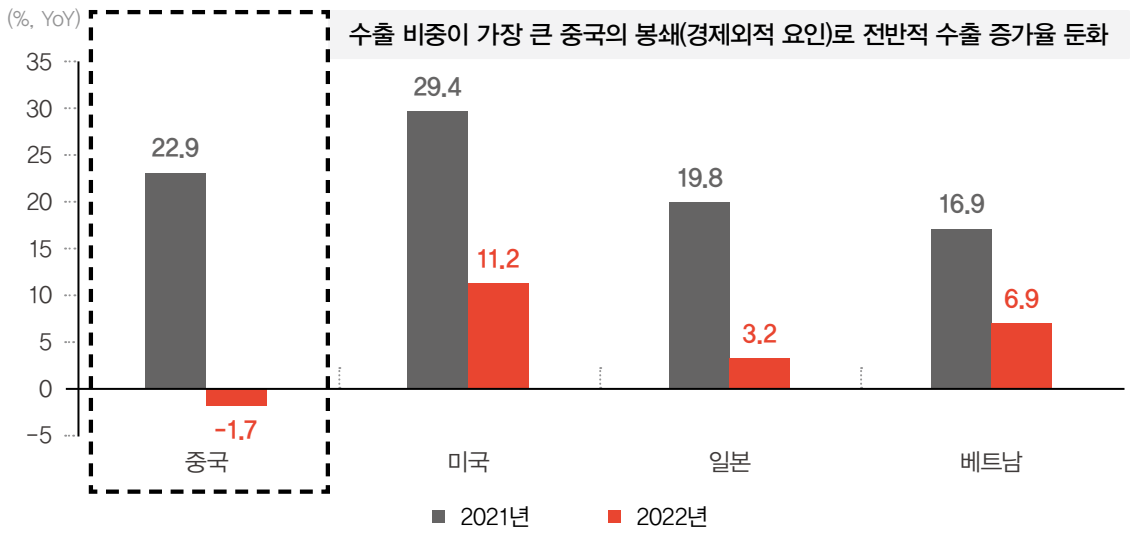
도표 5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의 Keyword: 경기침체



※ 자료: Bloomberg, IMF, WB, OECD

- 이러한 상황에서 ①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②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체감 경기는 기준선(50)을 하회하고 있으며 ③ 미국의 소비 수요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반도체 이외의 여타 품목들의 수출 부진도 심화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 시 2023년 국내 수출은 예상보다 더(-10% 중후반까지도)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
- 그나마 기대할 부분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임. 그러나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대체로 중간재 비중이 높고 중국의 대외 수출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수요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조기에 한국의 수출 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도표 6 2022년 수출 부진은 중국향 수출 감소에 기인 ... 중국 봉쇄령 해제 후 점진적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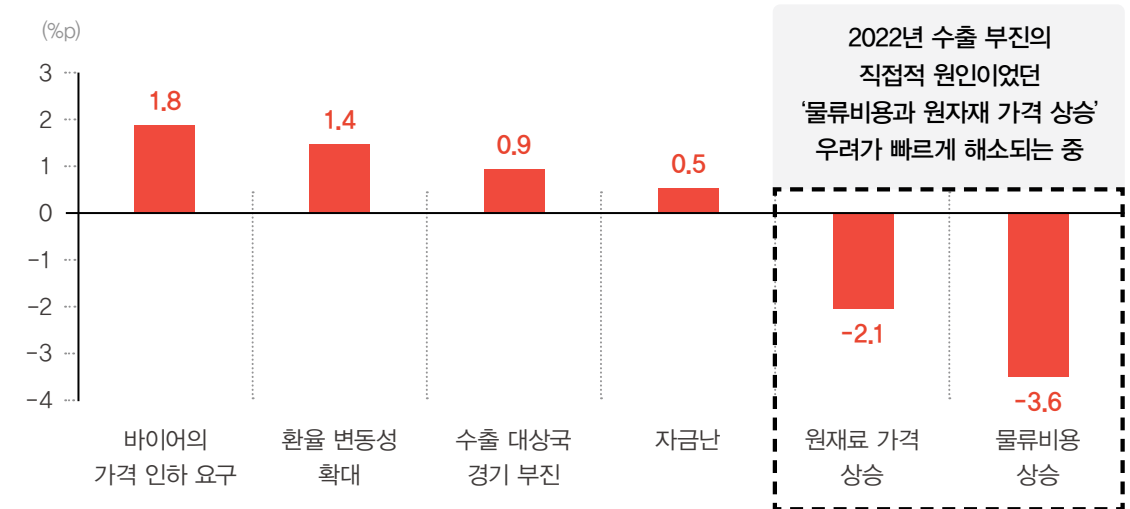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급부상 및 GVC에 따른 분업화로 인하여 전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물론 미·중 무역분쟁으로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영향력이 큼.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경험상 수출에 대한 극단적인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실제로 현재 수출 기업들이 우려하는 요인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 등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필수 비용적 요소들'이었음. 그러나 이미 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 보다는 좀 더 개선될 수 있음

도표 7 수출 기업들의 수출 애로 요인의 응답률 변화



※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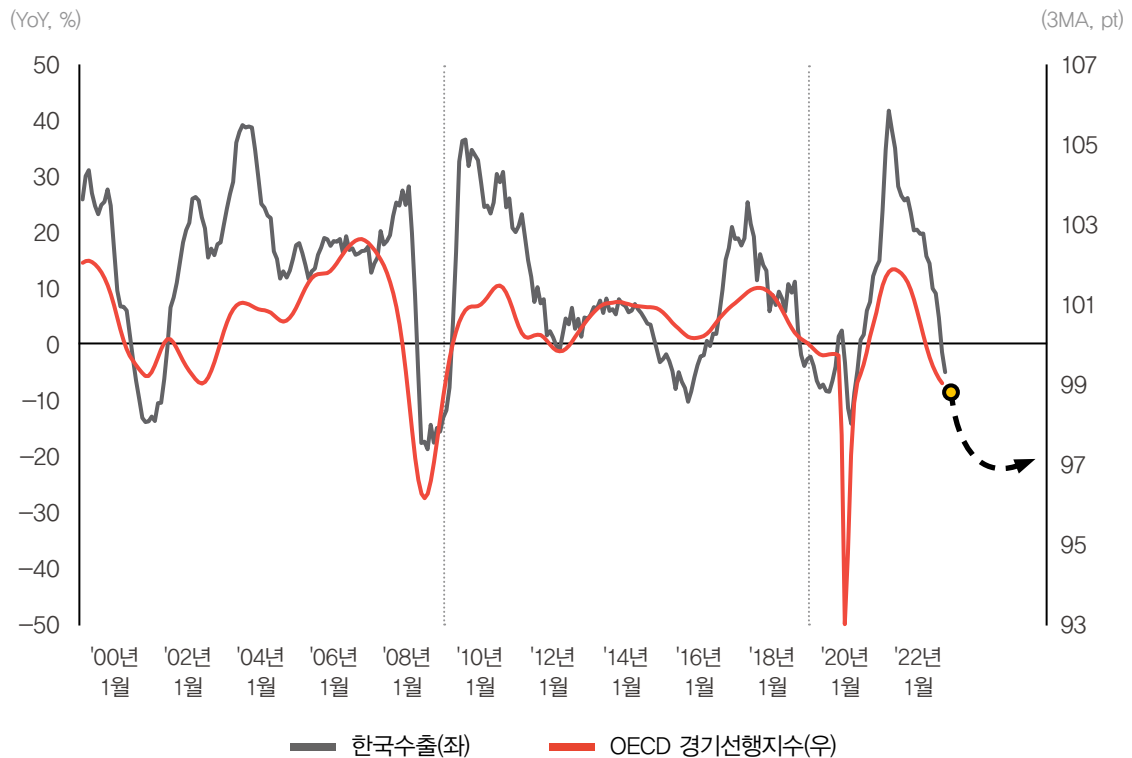
- 결국 2023년 한국 수출은 1Q부터 2Q에 YoY -10%부터 -20%로 둔화된 이후 3Q부터 4Q에 ±5% 이내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결국 2023년 수출 증감률은 마이너스(-)로 예상

→ 수출의 바닥은 상반기(특히 3~4월 중)으로 예상

→ 상저하고 패턴 기대: 하반기 수출의 저점 회복은 기저효과 및 중국의 역할 기대

- 수출 회복의 Key Point는 ① OECD 경기선행지수의 반등(100 이상 회복), ②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경기 민감)의 P와 Q 회복세로의 전환 여부라 판단됨

도표 8 OECD 경기선행지수와 한국 수출: 동행하는 양상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OECD

- 그렇다면 J-Curve Effect(이하, 제이커브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인가? 대답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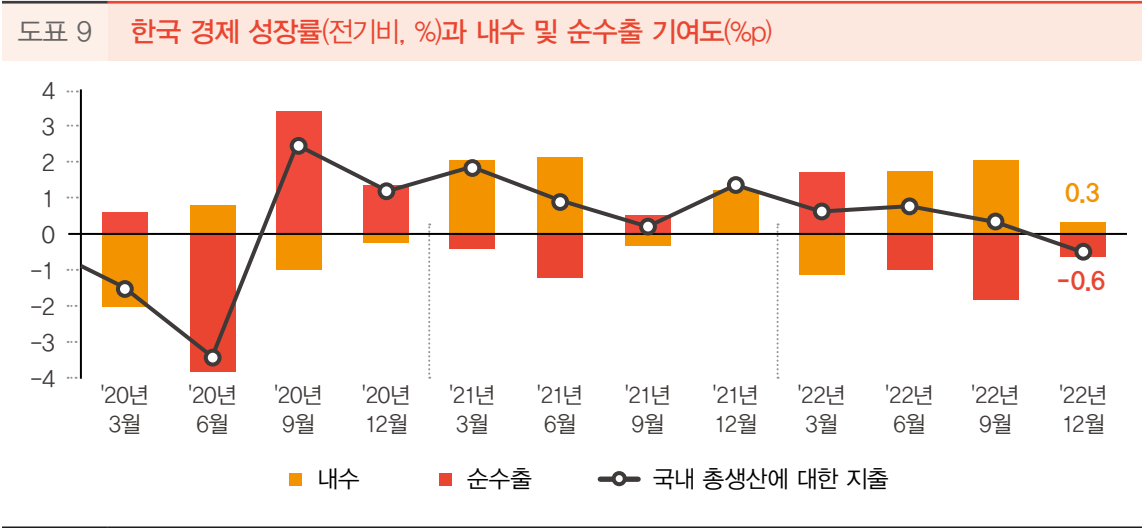
□ 수출 감소세와 동시에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수입도 전년보다 감소가 예상되나 그 감소폭이 수출보다 적어 2023년에도 무역적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물론 적자폭은 2022년보다는 줄어들 전망

• 무역적자 발생 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통화 약세 초기는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발생 및 확대)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제이커브 효과가 발생. 대외 수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화 약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 확대로 이어져 수출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 ... 1990년대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과 무역수지는 대체로 이런 경향을 충족

□ 그러나 2023년에는 세계 교역수요 감소, 한국의 수입물가 대비 수출 가격 회복이 전개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통화 약세의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 즉 제이커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문제는 이러한 수출 둔화와 더불어 2023년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 실질 구매력 약화로 내수 소비 부진 역시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

→ 2023년 한국 경제 성장, 대내외 수요 부진 불가피할 전망



※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산자원부

참고 한국무역협회 전망: 2023년 수출(-4%)과 수입(-8%) 모두 감소 전망

- 기본 가정: WTO의 글로벌 교역량 전망치 +1% vs.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하락
- 2023년 1Q EBSI(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81.8로 4분기 연속 악화 전망

cf. EBSI: 매 분기 마지막 월 2주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수출 실적 50만 달러 상회하는 업체 대상, 그 중 15개 품목별 약 2,000개 업체 표본으로 산정. 100을 기준으로 수출 여건이 전 분기보다 개선 시 100보다 큰 값, 악화 전망 시 100보다 작은 값

… 2023년 1Q 조사 결과 세부항목별로 보면, 국제물류(102.3)만 개선 전망. 수출채산성(95.4), 국제수급(81.1), 수출대상국 경기(79.9), 제조원가(71.7) 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2023년 1Q 주요 품목별 수출 애로 요인(1,2위) 전망]

품목	1위	2위
	항목	항목
생활용품	원재료 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석유제품	원재료 가격 상승·물류비용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화학공업	원재료 가격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철강·비철금속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기계류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
가전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
전기·전자 제품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물류비용 상승
무선통신기기·부품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반도체	원재료 가격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자동차·자동차 부품	원재료 가격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물류비용 상승
선박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

※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산자원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49.7)과 가전(55.7)이 가장 크게 둔화 vs. 자동차 및 부품(99)과 선박(146.5)은 기존과 유사 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4. 결론 및 제언

I 결론

- 2022년 상반기 수출의 높은 기저가 부담되는 2023년(정체된 Q x 하락하는 P = 수출 역성장): 2023년 수출과 수입 모두 역성장 및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수출, 상반기 YoY -10%부터 -20% 내외 ... 하반기 $\pm 5\%$ 범위로 추정
 - ... 추정치 상향보다는 경기침체 우려 커지고 있음을 감안 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음
 - 무역수지 적자폭은 2022년보다 축소 예상(내수 부진과 에너지 수입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감소에 기인) ...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다면 원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무역수지와 원·달러 환율은 + 상관관계 높음)할 가능성 있음
- 한편 연준의 긴축 약화, 중국의 리오프닝, BOJ의 정책 기조 변화 등을 감안 시 2022년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적인 흐름 예상

I 전략적 제언

- 제반 글로벌 경제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기업은 현재 '원가 및 비용 절감, 구조조정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
 - 자금의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 시기를 신사업 진출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
(ex) 기술력 높은 초기 스타트업 업체들의 지분 인수 검토
-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비용 완화',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 개혁' 등의 지원 필요
- 한편,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은 중국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기대되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 업종으로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다만, 과거와 같이 철강 등 전통적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 업종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 부양책' -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 친환경 가전들의 농촌 하향 추진, 지역별 소비 쿠폰 발행, 여행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 전개 예상
 - 임플란트, 필러 등 의료·미용 소비재를 필두로 점차 내구 소비재로 확산 기대
 - 전통적인 부동산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발표는 당분간 기대안
(지난 2022년 7월, 리커창 총리 '과도한 경기 부양 지양한다고 발표')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Director

eunyoung.lee@pwc.com

+82-2-709-0824

오선주 Senior Manager

sunjoo.oh@pwc.com

+82-2-3781-9344

강서은 Manager

seo Eun.kang@pwc.com

+82-2-3781-9137

최형원 Associate

hyungwon.choi@pwc.com

+82-2-3781-9638

www.samil.com

S/N: 2302W-RP-008

© 2023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